

브라질 기준금리(Selic) 10.25%로 1% 추가 인하

-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4월 29일(수요일) 기준금리(Selic)를 11.25%에서 10.25%로 1% 포인트 추가 인하를 만장일치로 결정
 - 이와 같은 10.25%의 기준금리 수준은 브라질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로서 지난 3월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금리인하(1.5%)를 단행한 데 이어 불과 한 달여 만에 1% 포인트의 추가 금리인하를 결정

브라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추이

(% , 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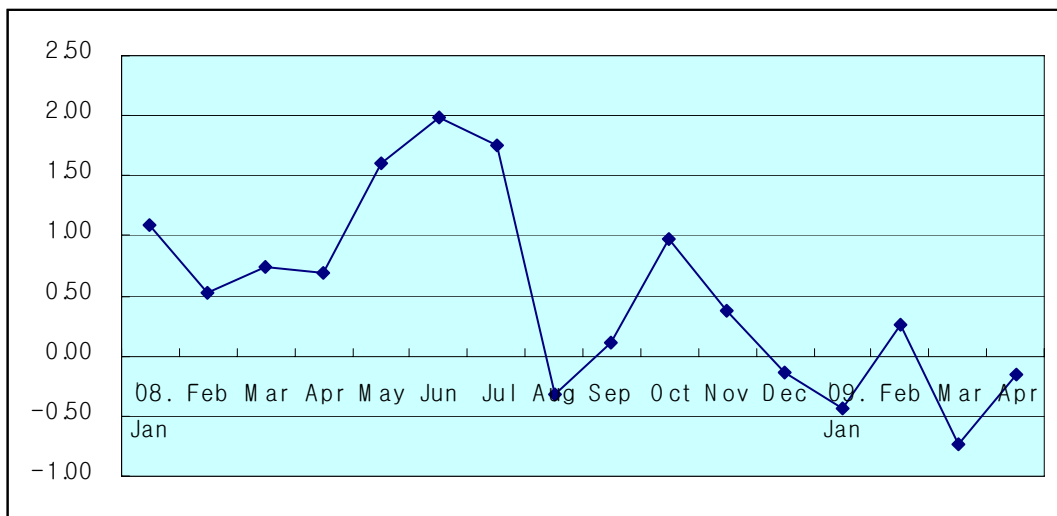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4	16.50	16.50	16.25	16.00	16.00	16.00	16.00	16.00	16.25	16.75	17.25	17.75
2005	18.25	18.75	19.25	19.50	19.75	19.75	19.75	19.75	19.50	19.00	18.50	18.00
2006	17.25	-	16.50	15.75	15.25	-	14.75	14.25	-	13.75	13.25	-
2007	13.00	-	12.75	12.50	-	12.00	11.50	-	11.25	11.25	-	11.25
2008	11.25	-	11.25	11.75	-	12.25	13.00	-	13.75	-	-	-
2009	12.75	-	11.25	10.25								

자료출처 : 브라질 중앙은행

- 브라질 중앙은행의 이 같은 기준금리의 연속적인 인하 결정은 계속되는 실업률의 증가와 연초 4%대의 경제성장률 목표에서 2%대로 조정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해석

- '09년 3월중 브라질 실업률은 9.0%(6개 대도시 기준)를 나타내었으며, '09년 2월의 8.5% 수준대비 0.5% 포인트 상승
-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2009년에 브라질 경제는 약 4.5% 후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국가지리통계원의 수치로는 61년만의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국내경제 전문가들은 금번의 금리인하 단행은 국내의 경기침체와 브라질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현재까지 기록한 낮은 인플레이션율은 6월로 예정된 통화정책위원회(Copom)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허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연말의 기준금리 수준을 9.25%로 전망
- 브라질내 제풀리오 바르가스 재단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인플레이션 측정지수인 소비, 건축, 도매물가 관련 IGP-M(시장물가지수) 지수가 4월중에도 0.15% 하락하였으며, 2009년 4개월중 3개월 동안 해당지수가 하락하였다고 설명

브라질 시장물가지수 동향



- 브라질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은 $4.5\% \pm 2\%$ 수준으로 현재 인플레이션 전망이 목표치의 중간이하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고려할 때 금리가 타 이머징국가들 수준으로 떨어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현지에서는 분석
- 중남미 국가중 멕시코의 기준금리는 6%대이며, 칠레는 최근 1.75%로 기준금리를 낮추었으며, 페루는 약 5%대 수준을 기록
- 한편, 금번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브라질의 실질금리는 5.8%를 기록해 중국 6.6%, 헝가리 6.4%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

<사우파울루 사무소 제공>